

생성과 소멸의 변주곡이 울려 퍼지는 습지 예찬

습지주의자

김산하 지음



습지주의자

“생명과 죽음이 서로 용해되는, 섬세하고 풍요로우며 뿌연고 불가해한,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인 습지. 습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라코타 족의 언어로 물은 ‘므니’라고 합니다. 하나 원래 의미는 ‘살아 있는 것들의 느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가요? 저와 습지와 연결되었나요?”(본문 중에서)

한국 최초 야생 영장류 학자인 김산하 박사는 습지를 이렇게 말한다. ‘생명과 소멸의 변주곡이 울려 퍼지는 곳’. 또한 그는 습지를 이렇게도 규정한다. 습하면서 마르고 물이면서 물인 곳, 물과 흙이 빚어내는 역동의 세계라고.

김산하 박사가 펴낸 ‘습지주의자’는 픽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습지를 조명한다. ‘자바긴팔원숭이의 먹이 찾기 전략’을 연구한 생태학자답게 책에는 생명의 서식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습지라는 공간에 대한 감수성, 상상력은 인문학자 못지않은 풍부한 시각과 섬세함이 빛난다.

책은 생태학 관점에서 습지가 지닌 본질을 탐구하는 한편, 습지가 선사하는 총명한 감각들을 전달한다. 그로 인해 생태학은 자연이 스스로를 표현하게 해 주는 언어로 확장된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습지에 대한 평가는 일정 부분 폄하돼 있다. ‘노는 땅’ 내지는 ‘개밭’을 기다리는 땅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구 표면의 6%에 해당하며 10만 종에 달하는 생명의 서식지가 바로 그곳이다.

“물과 땅이라는 지구의 가장 대표적인 면서도 상호 이질적인 물질들이 마법처럼 공존하는 곳입니다.…… 두 세상의 경계이자 어엿한 하나의 독립 세계, 수분과 대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가능성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곳. 네, 그렇습니다. 습지가, 반쯤 잠긴 무대입니다.”

픽션이라는 형식에 따라 내용은 두 개의 축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나라’는 인물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인 ‘장’이라는 축으로, 또 하나는 ‘나’가 듣는 습지 팟캐스트 ‘반쯤 잠긴 무대’가 ‘무대’라는 축으로 교차 배치된다.

‘나’의 원래 직업은 영화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환경단체로부터 영상 제작 의뢰를 받는다. 두꺼비와 개구리가 이용할 ‘생태 동로’를 주제로 하는 홍보영상이다. 책은 도시인이자 창작자로서 나의 내면을 보여 줌과 동시에 나의 시선을 통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게 한다.

‘반쯤 잠긴 무대’의 주제는 습지다. 습



황룡강이 흐르는 광주시 광산구 장곡습지.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의 탄소 저장량은 미국이 4년간 배출하는 탄소의 총량에 맞먹는다. 질소를 고정하는 데다 홍수 피해까지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습지의 생성은 물과 흙이라는 근본적인 조건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물과 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적잖이 왜곡돼 있다. 물에 젖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흙탕물을 더럽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습지의 구성요소를 새롭게 살펴보고 생태적 감수성을 연습해보라고 권유한다. 물을 마시는 과정을 세밀하게 인지해보는 연습, 찰흙으로 만든 땅 모형에 물결을 만들어 습지 생성 원리를 생

각해보는 연습 말이다.

그러다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습지는 우리 모두가 생명이라는 거대한 카테고리에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연결의 끈은 동료에 같은 것이었다.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삶을 구가하는 운명 공동체.…… 이 연결의 끈을 여태 왜 몰랐을까? 이 마르고 단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울리지 않게 피부 호흡으로 물을 찾아 살아가는 같은 처지인데.”

(사이언스북스·1만9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구글의 종말=IT 기술의 선지자이자 3대 디지털 사상가인 조지 길더의 예측을 담았다. 오늘날 일상에서든, 비즈니스에서든 구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한참 성공기도를 달리고 있는데 ‘구글의 종말’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 책에서 저자는 구글이 구축한 세상 체계의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고 대신할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청림출판·2만원)

▲노키아의 변신=노키아가 왜 성공의 정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1부에서는 노키아가 전 세계 휴대전화 업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시기부터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몰락하게 된 과정을 담았다. 2부는 노키아가 다시 부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에코리브르·2만3000원)

▲굿라이어-저자 니컬러스 설은 영국 정보부 등에서 25년간 일한 후 은퇴해 이 책을 썼다. 책의 주인공은 온라인 데이터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나이 지긋한 남편, 로이와 베티다. 알고 보니 로이는 베티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 하지만 베티도 땀을 흘리고 있다. 온라인 데이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울리지 않게 피부 호흡으로 물을 찾아 살아가는 같은 처지인데.” (엘리책들·1만6800원)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책은 150년 전 독일 사회민주당을 필두로 세계 곳곳에 등장했던 좌파정당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인간의 얼굴을 선사한 주역이었음을 증명하는 비망록이면서, 그 길에서 명멸해간 숭한 혁명가와 개혁가들의 백가쟁명을 담은 실록이다. 1860-1870년대 비스마르크 정권의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피해 독일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이 선술집에 모여들며 시작된 이야기는 4부에 걸친 16개의 에피소드로 전개된다. (서해문집·3만원)

어린이·청소년 책

▲단어를 먹는 아이=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표현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우리는 기쁨, 슬픔, 사랑, 분노,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산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책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차례로 먹는 아이가 나온다. 과연 이 아이에게 무슨일이 벌어질까? (르네상스·1만2000원)

▲알록달록 손바닥 친구=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손도장을 찍어서 만든 ‘우정’ 그림책. 아이들에게 ‘친구’가 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우정’이라는 주제로 손도장을 찍어서 이 그림책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각자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페이지마다 알록달록 재치 있게 담겼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따져 읽는 호랑이 이야기=우리나라는 호랑이(虎) 이야기 많은 나라이다. 작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호랑이 이야기를 더 파고들어 본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한정되지 않고, 세대를 초월하여 남녀노소 모두의 이야기였던 ‘호랑이 이야기’의 이면을 파헤친다. 책은 다채로운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창을 열어준다. (술·1만4000원)



영화에 등장한 거의 모든 기술은 실제로 존재한다

마블이 설계한 사소하고 위대한 과학

세바스찬 알바라도 지음·박지용 옮김

우리의 주인공 ‘스파이더맨’ 에겐 손끝과 발끝으로 어디에든 달라붙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 170m 높이 위상된 기넌빌을 타고 오르고 유리처럼 매끄러운 표면에도 각도에 상관없이 달라붙는다. 실험 도중 감마선에 노출된 브루스 베너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면 ‘혈크’로 변신하고, 신비한 땅치 풀니르를 갖고 다니는 ‘천둥의 신’ 토르는 자연의 가장 강력한 힘인 번개를 자유자재로 제어한다. 부호 토니 스타크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수많은 악당들을 물리친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마블 영화’는

수많은 캐릭터를 창조하며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한다. 영화를 볼 때면 다들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저 능력은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나 가능할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일까?”하는 점이다.

과학 컨설팅회사 공동창업자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필요한 과학 지식을 제공중인 뉴욕시립대 킨즈칼리지 세바스찬 알바라도 교수의 저서 ‘마블이 설계한 사소하고 위대한 과학’은 43개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속 에피소드를 통해 과학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

저자 자신이 ‘엑스맨’의 초능력을 형성하는 유전 원리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에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책 속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누구나

궁금해하고 한번쯤 그 가능성을 상상하며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 봤을법한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저자는 “마블 유니버스가 던지는 의문은 서로 다른 분야의 과학을 이어주는 관문과도 같으며, 놀랄게도 영화에 등장한 거의 모든 기술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또 마블 스토리의 작가와 연출자는 언제나 주변 세계에서 영감을 받는 듯 하고 말한다. “원자폭탄을 두려워하던 냉전 시대 사회분위기가 스파이더맨과 혈크를 탄생시키고, 이후 유전학이 보편적 학문이 되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돌연변이 엑스맨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책은 ‘복잡한 두뇌’, ‘에민한 신경 과학’, ‘기이한 생리학’, ‘놀라운 기계 공학’, ‘경이로운 역학’, ‘위력적인 무기’,



마블이 설계한 사소하고 위대한 과학

‘환상적인 물리학’, ‘눈길을 사로잡는 첨단 무기’ 등 10개의 장으로 나눠 마블이 설정하고 있는 가상의 과학을 분석하고 현실에서 진행되는 그와 닮은 연구를 소개한다.

독자들은 ‘엔트맨과 와스프’, ‘어벤저스: 엔드 게임’ 등을 통해 양자역학을 응용한 시간여행을 접하고, 히어로가 된 블랙 팬서와 빌런이 된 킬링거에게서 유전학, 캡틴 아메리카와 윈터 솔저에게서 냉동 인간 기술을, 타노스의 리얼리티 스톤에서 공학을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마블 시리즈’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흥미로운 텍스트다. (하이픈·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